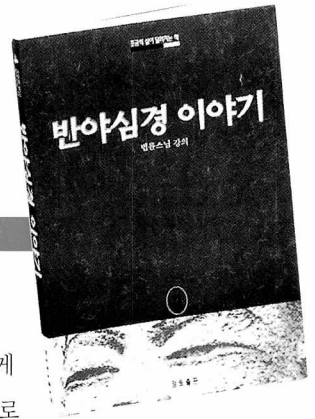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책

《반야심경 이야기》

박남정 | 출판칼럼니스트



정토출판/A5신/296면/7000원

오해를 없애기 위해 미리 밝혀두지만 난 '신자'가 아니다.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찬송가도 좋고 염불소리도 좋아하지만 교회나 절에 가 머 리 조아리고 기도하고 무릎이 닳도록 절하고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들 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의심이 많아서일까. 난 무엇을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

번민하는 젊은이에게 내려진 깨달음의 죽비

절대적인 믿음의 부재. 어쩌면 내 삶의 모양새가 봄바람에 어지러이 날 리는 꽃잎들마냥 늘 가벼이 흔들리고 어수선한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르 겠다. 그 어수선함도 익숙해지니 이제 내 것이 돼, 나는 기획하고 계 획하고 의심 없이 실천하는 삶보다는 늘 허둥대고 적당히 정신 없고 번 잡스러워야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브레이크가 걸린다. 《반야심 경 이야기》(법륜, 정토출판)는 내 삶의 브레이크 장치와 같은 책이다. 《반야심경》은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알 만큼 유명한, 대승불교의 대 표적이고 핵심적인 경전이다. 어느 절간에 가나 법회를 시작할 때는 반 드시 이 경전을 외운다. 특히 이 경전 가운데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 색'은 안 쓰인 데 없는 '화두'라는 불교용어만큼 남발되는 구절이기도 하다.

엄마 따라 절에 가도 사천왕상이 무서워 일주문 들어설 때면 가슴이 쿵닥거리고 향냄새가 싫어 법당에는 한사코 따라 들어가지 않던 내가 이 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어쭙찮고 엉성하며 낮 뜨거운 감상으로 넘쳐나던 스물 몇 살 때다. 이래저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그때, 내 가 떨쳐버리지 못하고 돌덩이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있던 고민은 '세상 과 나'였다. 거창하기도 하여라. 비웃음을 산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나 는 정말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 결국은 나 자신을 알고 싶었다. 때때 로 입술이 타고 가슴에 물리적인 통증이 느껴질 만큼 절박하고도 간절 하게 그 질문에 매달렸던 것은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제일 큰 이유는 그때 내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 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런 고민과 갈증으로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다니던 중 우연인지 인 연인지 뜻하지 않게 1980년대부터 실천불교를 주창하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재가불자운동을 벌이던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 홍계 동의 포교원에서였는데, 스님은 자리의 대부분을 배운 학생, 청년들의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이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젊었고 정말이지 달랐다. 이 책은 스님이 당시 포교원 에서 했던 《반야심경》 강의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자신을 버리고 변화하는 자는 늘 아름답다"

《반야심경》이 불교의 대표적 경전이니 이 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불교 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성경》이 기독교인만의 책이 아니듯 불경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일반론이 아니더라도 이 책은 단순한 종교서라기보 다는 보편적 철학서나 심도 깊은 에세이로 읽히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 고 있다. 자연과학의 원리와 검증된 법칙들을 바탕으로 불교의 우주관 과 세계관을 풀어내는가 하면 글 사이사이에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문 제들 그리고 당시 젊은이들이라면 대부분 끌어안고 있었을, 역사와 개 인 그리고 사회문제들에 고민과 그에 대한 답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 며 설파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내 안에서 밀도끝도 없이 솟아나던 의문들이 말끔히 가시는 기분이었다. 그 핵심은 역시 '연기'와 '변화'. 세상에 모든 것 은 연관돼 있다는 것,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만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도 내 이웃도 자연도 세상도 변화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남이 아니고 남 이 곧 나이므로 함께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변 화의 방향이다. 삶의 길을 가는 데 이것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한 지침 이 있을까.

실천하고 살면 '중이나 중 아닌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던 스님은 지금까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돕기운동,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 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환경 운동 등을 펼쳐나가며 그야말로 실천적 삶을 살고 계신다.

작은 것에 쉽게 화를 내면서도 정작 분노해야 할 것에는 입을 다물 고, 내 것을 침해받는 것을 못 견뎌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무 관심하고, 입으로 떠들고 글로는 쓰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나 행 하 지는 않는 내 사는 모양새가 문득 돌아와져 이게 아닌데 싶을 때면 나 는 이 책을 펼쳐들게 된다. "자신을 버리고 변화하는 자는 늘 아름다운 법이다"던 스님의 그 아름답고도 서늘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 서다. ■